



활자와 인테리어

여의도 한식당 '운산' 에서 멋진 조우

일반적인 활자의 가치는 책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후대에 전달해 주는 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활자가 인체의 과정에서 활발히 유통될 당시의 이야기이며, 활자가 박물관 속으로 자리잡은 최근에는 활자의 가치는 기록의 용도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CCM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한식당 운산(雲山)은 활자를 이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곳이다.

용수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국내에 있는 7개의 지점이 각자 독특한 인테리어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여의도 지점에 해당하는 '운산'에서는 활자를 인테리어에 접목시킨 것이다.

운산 맹성주 지점장은 "우리의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운산과 역시나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활자가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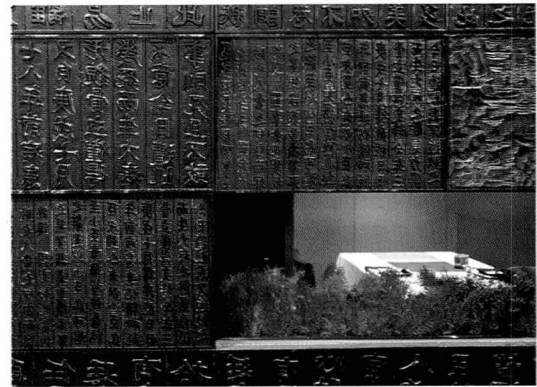
어울리는 모양이다. 손님들의 반응도 썩 좋은 편이다"라며 활자인테리어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을 전했다.

운산의 입구 정면과 실내 이동 통로 한 쪽 측면에 조각된 활판들은 정확한 집필 시기를 알 수 없는 개인 문집으로 총 3권이 이용됐다.

운산에 장식한 거대한 활자판은 제작 단가 문제로 인해 국내 제작이 실현되지 못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활판을 이용한 디자인 기획이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용수산 김윤영 사장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개성시 승전동과 개풍군 고남리 경계에 위치한 용수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용수산이 개성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수산은 현재 국내에 7개의 지점이



있으며, 미국 LA에 해외 지점이 있으며, 연내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